

2016 지평 사회책임보고서

Pro Bono, 공익을 위해 나누다

01

공익정책 & 2016년 공익활동지표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의 사명을 사회적의와 인권 실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평은 '나눔, 배려, 참여의 정신'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며 설립과 동시에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는 국내 법무법인 가운데 최초의 공익위원회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익활동을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아 공익활동규정을 로펌 최초로

제정하였고, 설립 직후에는 연 50시간, 현재는 연 20시간의 공익활동을 변호사의 의무로 정하여 실천해 왔다. 지평이 구성원에게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정한 것은 변호사 협회가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한 때보다 더 빠른 것이었다.

지난 17년 간 지평 공익위원회는 공익활동을 기획·지원하고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국내 법무법인 사

회공익활동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왔다. 지평은 공익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비영리 사단법인 두루를 설립하였다. 두루의 설립취지는 사회정의와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두루는 공익소송, 법률자문과 상담, 입법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두루 살피고, 보다 따뜻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1. 법률분야 공익활동

분야	평가지표	2016년
A 구조	1.A.1 공익활동위원회 설치 여부	있음 명칭 : 지평 공익위원회
	1.A.2 공익활동 규정 제정 여부	있음
	1.A.3 공익활동 프로그램 / 목표 설정 여부	있음
	1.A.4 공익활동 전담변호사 고용 여부	있음 4:125 (변호사 100명 당 3.2명)
	1.A.5 공익활동 코디네이터 고용 여부	있음
	1.A.6 공익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제공 여부	있음 공익위원회 위원, 두루 상근변호사, 직원을 통한 공익활동, 코디네이트 및 공익소송, 공익자문 등 행정업무 지원
	1.A.7 공익활동 관련 교육 제공 여부	있음 연간교육시간 : 16시간
B 활동	1.B.1 총 공익활동 시간	5,433.06시간
	1.B.2 근로시간 대비 공익활동 비율	2.84% (5,433.06시간 : 191,184.18시간)
	1.B.3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43.46시간 (5,433.06시간 : 125명)
	1.B.4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45.66시간 (5,433.06시간 : 119명)
	1.B.5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95.20% (119명 / 125명)
	1.B.6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71.20% (89명 / 125명)

분야	평가지표	2016년
1.B.7	소속변호사 67명	94.03% (63명 / 67명), 42.16시간 (2,825시간 : 67명)
	구성원변호사 58명	96.56% (56명 / 58명), 44.97시간 (2,608.06시간 : 58명)
	공익활동 지원비	22,280,308원
	공익활동 교육 지원비	4,079,475원
1.B.8	공익활동 관련 예산	외부공익단체 지원비 222,970,000원
	합계	249,329,783원
B 활동	1.B.9 공익활동 수치	공익소송 대리 : 75건 공익자문 의견 : 368건 공익상담 : 223건 도움받은 사람 : 약 666명
	1.B.10 분야별 공익활동 현황	2016 지평 · 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1.B.11 공익활동 관련 사건의 배당 방식	① 공공기관, 협력 NGO단체 등을 통한 공익소송 및 공익자문 요청, 분야별 소위원회 및 NGO 자문변호사 중심으로 NGO와 협력하여 인권 · 공익분야 이슈 발굴 ② 공익위원회 논의 및 승인 ③ 분야별 전문소위원회 소속변호사에게 배당하거나 사건 관련 전문변호사 또는 내부 모집을 통한 지원자 배당
	1.B.12 공익활동 지원	2016 지평 · 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1.B.13 공익활동의 공익인권지향성	2016 지평 · 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C 평가·보상	1.C.1 공익활동이 평가·승진·보상에 반영되는지 여부	① 국내 · 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내지 전문가) 및 직원 연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의무화 ② 예비구성원변호사 및 직원 평가 시 공익활동 반영

2. 비법률분야 공익활동

분야	평가지표	2016년
A 기부	2.A.1 기부 총액	222,970,000원
	2.A.2 로펌 구성원 1인당 기부 액수	655,582원 (335명)
	2.A.3 공익인권 관련 기부의 비중	95.60% (213,170,000원 : 222,970,000원)
	2.A.4 기부 현황	2016 지평 · 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B 사회봉사	2.B.1 사회봉사활동 총 시간	2172.5시간
	2.B.2 로펌 구성원 1인당 사회봉사활동 시간	6.49시간 (335명)
	2.B.2 사회봉사활동 현황	2016 지평 · 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 본 지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에 따라 산출한 것이다.

※ 법무법인 지평 소속 국내변호사 125명(지방사무소, 해외사무소 포함/입사유보자, 비상근고문 제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 공익 전담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소속변호사)의 활동 시간은 제외하였다.

※ 비법률분야 공익활동은 직원을 포함한 전체구성원(입사유보자, 비상근고문 포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 상세 내용은 별도의 2016 지평 · 두루 공익활동보고서 참조

02

공익활동

장애인 권익옹호활동

지평은 두루와 함께 장애인에게 불편이 없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한 소송과 법률자문 및 법·제도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16년의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

지평과 두루는 2016년 4월부터 6개월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주로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위 연구용역은 바닥면적 및 건축시기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 등의 내용과 문제점, 실태를 살펴보고, 해외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타 활동

- 법학적성시험 응시과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임시구제청구 수행
-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확보를 위한 차별구제소송 항소심 수행
- 인강재단 관련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 이사회임명명취소소송 수행
- 중증장애여성을 대리하여 병원의 의료과실과 장애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한국장애인개발원 <문화·예술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연구 자문
-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조문집 <우리 모두 소중한> 개정판 감수
- 장애인법총서 중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도입과 과제>, <정신적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법원의 구제조치'> 집필
- 마음건강복지재단 전주시 민관합동 지도감독 참여



시·정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별구제소송 제기

지평과 두루는 2016년 2월 시·정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극장운영업체를 상대로 화면해설, 자막 등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영화상영관을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자막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극장은 이미 시·정각장애인을 위한 기기를 개발하여 상용 중이고, 국내 영화계에서도 이러한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

지평과 두루는 2016년 7월부터 장애인단체들과 장애인활동보조제도 개선 TF를 결성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참여하였다. 지평과 두루는 여러 장애인재단 산하시설의 인권침해에 법률지원을 한 경험을 기초로 9월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증언대회'에 참여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권익옹호활동

지평은 두루와 함께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들 앞에 닥친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함께하고 있다.

미혼한부모생활시설과 미혼모대안학교 법률교육 진행

애란원은 국내 최초의 미혼모자생활시설로 그 역사가 50년이 훌쩍 넘었지만 전면적으로 법률을 다룬 교육은 지평이 처음이었다. 지평과 두루는 2014년부터 헌법과 인권, 십대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소비자의 권리,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아동학대, 소년범죄, 입양, 혼인과 이혼, 친권과 양육권 등 다양한 주제로 미혼모들을 만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타 활동

- 아동학대형사사건 피해아동 대리
- 학대피해아동 파양사건 대리
- 준강간사건 피해청소년 대리
- 성폭력·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피해자 대리
- 입양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위한 입법운동
- 수용자 자녀와 가족 지원시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법률자문
-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Partnership ON) 법률자문, 법률교육, 법률프로젝트 지원
-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파견 및 법률자문
- 미혼한부모생활시설 애란원 법률자문 및 심대미혼모 법률교육

입양아동학대사건 피해아동 대리

지평과 두루는 미혼모자시설을 통해 의뢰받아 파양사건과 함께 아동학대형사사건에서 피해아동을 대리하였다. 법원의 입양허가결정이 나기 전에 입양을 전제로 위탁된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난 사건이다. 지평과 두루는 한부모가족이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이상 입양과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 혁신리더 법률지원

지평과 두루는 아산나눔재단의 '파트너십 온(Partnership ON)' 사업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혁신리더로 선정된 아동·청소년단체와 지평과 두루 소속변호사가 1대 1로 매칭되어 법률자문, 법률교육, 법률프로젝트 수행 등 다양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수용자 자녀를 위한 법률지원

지평과 두루는 수용자인 보호자의 친권·후견권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소년보호사건을 대리하는 등 수용자 자녀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평과 두루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함께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부모 체포 시 가이드라인, 아동의 수용자 부모에 대한 면접권, 장기수용자 부모 관련 후견제도, 수용자 자녀에 대한 요보호아동체계 등 수용자 자녀와 가족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에 앞장서고자 한다.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의료업무매뉴얼 감수

지평과 두루는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의 법률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평과 두루는 여성가족부와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가 집필한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을 위한 의료업무매뉴얼>의 법률부분을 맡아 작성하고 감수하였다.

이주민·난민 권익옹호활동

지평은 두루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지평 해외사무소를 통해 법률가의 해외봉사활동 및 공익법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건 대리

지평과 두루는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단체인 '지구인의 정류장'과 결합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지평과 두루는 트랙터를 몰다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건을 대리하고 있다.

이주민센터 '친구' 법률자문 및 지원

지평과 두루는 이주민센터 친구의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친구'는 2011년 12월에 설립되어 이주민들의 인권,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두루는 친구에서 발간한 상담사례집을 감수하고, 정기적으로 친구에서 이주민들과 상담을 하면서 친구와 연대 활동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외국인 미혼모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수행

한국에 온 뒤 아이를 출산한 외국인 A씨는 이슬람교를 믿는 가족들과 고국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생명이 위태롭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놓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A씨의 꿈을 지평과 두루가 지원하고 있다. 난민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 지평과 두루 역시 난민의 사회 정착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기타 활동

- 몽골 유학생 체류자격변경신청불허처분 취소소송 대리
- 파키스탄 기독교도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대리
-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소송 대리
- 미혼모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 IVECA(International Virtual Elementary Classroom Activities) 한국 내 비영리법인 설립 및 회계 등 운영업무 법률자문
- 이주민센터 '친구' 법률자문 및 지원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 주 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법률자문
- 미얀마 한인회 법률자문
- 외국인 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관련 법률자문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조교의 지속적 괴롭힘 관련 법률자문
- 농·축산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지구인의 정류장 지원
- 법무부 투자 비즈니스 가이드 핸드북(이란편) 제작 참여 및 지원

그 밖의 권익옹호활동

지평은 두루와 함께 여성, 노동, 환경, 통일 등 다양한 공익 법영역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언론인 선거운동금지조항 위헌결정 승소

지평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위헌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 자체를 막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배 주장도 인정하였다. 이번 위헌결정은 선거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 선거법제와 언론관계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성폭력피해자 무고사건 승소

지평과 두루는 '한국여성의전화'의 요청으로 성폭력피해자 무고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회식에 참석했다가 맞은 편에 앉은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지만, 수사기관은 강제추행피해에 대하여 수사하다 오히려 성폭력피해여성을 무고죄로 기소하여 재판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2015년 1심 무죄판결에 이어 2016년 2월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기각판결, 2016년 8월 상고심에서도 검찰 상고기각판결을 이끌어냈다.



기타 활동

- 선거운동의 자유·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 언론인 선거운동금지조항 헌법소원
- 선거운동의 자유·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 기탁금 관련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 선거운동의 자유·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 선거기간 중 집회·모임 관련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 환경 / 송전선 설비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헌법소원
- 여성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무고소송
- 여성 /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대리
- 노동 /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 법률자문
- 노동 / 서울여성노동자회 법률자문
- 통일 / 남북한 국토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 통일 / 통일특구법 검토
- 통일 / 남북협력지구 법률자문
- 인권 전반 /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자문 및 인권침해 정기상담
- 인권 전반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
- 인권 전반 /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 시민단체 / 나눔문화 임대차 관련 법률자문
- 시민단체 / 아쇼카 한국 법률자문
- 시민단체 / 열매나눔인터내셔널 법률자문
- 시민단체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시민단체 / 기부금 관련 재단법인 우체국공익재단 법률자문
- 시민단체 / 아름다운재단 법률자문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대리

지평은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스토킹 피해로 살해된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하고 있다. 가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스토킹 및 협박 사실을 부인하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다투어 왔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적절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여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여성단체 '한국여성의전화'의 요청으로 지평이 지원하게 되었고, 가해자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대리

지평과 두루는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대리를 맡았다. 지평과 두루는 경찰이 이 사건 직전 범행이 발생하였을 때 범행현장 근처에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있었는지 보호관찰소에 조회해 보지 않은 점,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들어 국가의 법령위반을 주장하였다.

사회봉사활동

지평은 두루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현장을 경험하고,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지평은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서대문구 연희동에 소재한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제빵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5시간 동안 개량, 반죽, 빵 굽기, 포장 공정 등에 참여하여 직접 구운 따뜻한 빵을 서대문구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한다.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

지평은 매달 첫째 주 월요일마다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저녁식사 배식 및 마무리 정리를 함께하고 있다. 노숙인의 환한 미소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탈북청소년을 위한 '겨레얼학교' 봉사활동

지평은 겨레얼학교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재정 후원과 함께 법률교육 및 법정프로그램 견학, 가을소풍, 탁구대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겨레얼학교는 북한이탈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2세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한국의 제도권 교육에 원활하게 진입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 10월 설립된 기숙형 대안학교이다.



12년째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참여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은 2004년 6월 남과 북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지평은 2005년부터 12년째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지평과 두루 구성원 30여명은 2016년 11월 26일 개포동 구름마을에서 열린 '2016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 참여하여 1가구에 200장씩 10가구, 총 2,000장의 연탄을 전달하였다.

농촌봉사활동

지평과 두루는 2012년부터 5년째 농촌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에는 1박 2일 동안 제천시 덕산면으로 손모내기 농촌봉사활동을 다녀왔으며, 같은 곳에서 9월 25일에는 벼 베기를 진행하였다. 10월 8일에는 1박 2일 동안 제천시 덕산면에서 오미자 수확을 하였다.



03

지평은 구성원의 후원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0년 8월부터 매칭그랜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칭그랜트는 구성원이 공익단체에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금액만큼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1대 1로 매칭하여 후원하는 제도이다. 2016년에는 총 50건의 후원으로 구성원과 지평 모두 나눔의 기쁨을 누렸다.

2016년 개인 후원 금액 (원)

24,450,000



2016년 후원금 합계 (원)

48,900,000

2016년 지평 후원 금액 (원)

24,450,000

기부의 활성화 '매칭그랜트'

매칭그랜트 후원 기관

겨레얼학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굿네이버스, 나눔인터내셔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먹거리나누기운동 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여성노동자회, 아름다운생명사랑, 사회복지법인 큰소망,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세이브더칠드런, 아름다운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유니세프, 인권재단 사람,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재단법인 진실의 힘, 전국천사무료급식소, 좋은예산센터, 참여연대, 한국컴패션,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시작, 해송복지원, 희망제작소

매칭그랜트 후원 기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법무법인 지평의 지원으로 국내 최초의 이주인 법률지원 매뉴얼을 제작하였고, 매년 인권법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평 변호사님들과 함께 공익활동을 수행하기도 하고 지평의 변호사 여러분이 공감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계셔서 매칭그랜트로 그 후원의 힘이 두 배가 됩니다. 회사 차원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구성원들의 선택을 존중함으로써 지평의 매칭그랜트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는 몇 십 배가 됩니다. 앞으로도 늘 함께해주실 것에 대한 감사와 기대를 전합니다.



매칭그랜트 후원 기관 <서울여성노동자회>

손영주 회장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는 성차별, 성희롱, 출산휴가 사용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상담 문의로 전화벨 소리가 잠잠할 때가 드뭅니다. '평등의전화'는 변호사, 노무사들의 재능후원으로 법률지원이 필요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평등의전화'의 고마운 후원자 여연심 변호사님의 인연으로 지평의 매칭그랜트 기부를 받고 있는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소중한 것을 귀하게 나누고자 하는 지평에 이 지면을 빌려 감사함을 전합니다.

